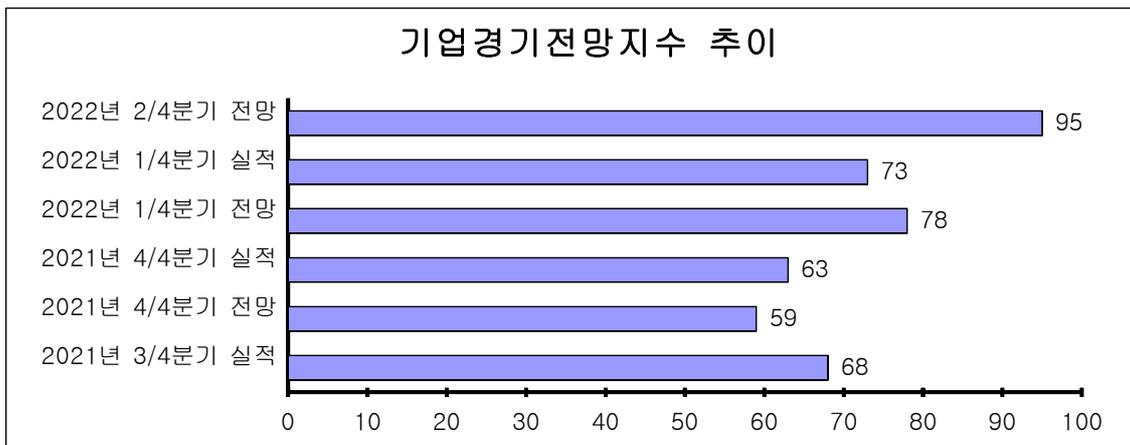


 영주상공회의소 調査結果	2022년 2/4분기 기업경기전망 조사
경제사업부 054)632-8830	관내 30개 제조업체 조사 결과

영주상공회의소(회장 조관섭)는 최근 관내 30여개 제조업체를 표본대상으로 2022년도 2/4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 : Business Survey Index)를 조사한 결과, 직전 분기보다 '17' 포인트 상승한 '95' 를 기록했다. 실적추정치는 전 분기보다 '10' 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기업경기전망지수(BSI)는 기업들의 현장 체감경기를 수치화한 것으로 0 ~ 200 사이로 표시되며, 100을 넘으면 이번 분기 경기가 전 분기에 비해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음을 의미하며,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부문별 기업경기전망지수 추이

	2021년 3/4분기 실적	2021년 4/4분기 전망	2022년 4/4분기 실적	2022년 1/4분기 전망	2022년 1/4분기 실적	2022년 2/4분기 전망
체감경기	48	57	42	85	52	88
매출액	61	52	58	73	72	108
영업이익	57	43	54	65	48	85
설비투자	113	57	88	92	108	96
자금조달 여건	65	65	73	77	71	84
공급망 안정성	57	70	X	X	X	X
공장가동 여건	74	70	X	X	88	108

2022년 2/4분기 기업경기 전망 지수를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체감경기 88, 매출액 108, 영업이익 85, 설비투자 96, 자금조달 여건 84, 공장가동 여건 108 으로 대체적으로 2022년 1/4분기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전망했다.

2분기 경영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묻는 항목에는 ‘코로나 여파 지속에 따른 내수 침체’ (25.8%), ‘유가·원자재가 상승에 따른 생산비용 증가’ (24.7%), ‘국내 금리인상 기조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 (14.6%), ‘중대재해처벌법등 기업 부담법안 시행’ (9.0%), ‘탄소배출 절감 등 환경이슈 대응 부담’ (6.7%), ‘국제관계 긴장 악화에 따른 수출 애로 심화’ (6.7%), ‘글로벌 공급망 문제로 인한 생산 차질’ (5.6%), ‘환율변동 심화에 따른 경영 불확실성 증가’ (5.6%)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1.1%>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국제유가·원자재가격 등이 급등하면서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현 상황을 묻는 질문에는 ‘영업 흑자는 유지 중이나 이전보다 규모 감소’ (45.8%), ‘특별한 영향 없음’ (37.5%), ‘영업적자로 반전’ (16.7%) 순으로 응답했으며 적자 또는 규모가 감소한 상황에서 대응책으로는 ‘생산원가 절감 노력’ (43.5%), ‘제품가격에 비용 상승분 반영’ (34.8%), ‘특별한 대응 방안 없음’ (21.7%)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현안 중 차기 정부가 중점을 두어야 할 경제현안을 묻는 항목에는 ‘최저임금제, 주52시간제 등 노동 관련 제도 개선’ (35.8%), ‘규제 완화 등 기업친화적 경영환경 조성’ (30.2%), ‘글로벌 공급망 차질 해소 등 국제관계 대응’ (11.3%), ‘사업 전환·재편 지원 확대 등 기존업종 고도화 촉진’ (7.5%), ‘신산업 인재 육성 등 인력 수급 개선’ (7.5%), ‘신기술 개발 지원 확대 등 미래산업 육성’ (3.8%), ‘친환경 R&D 지원 등 탄소중립 이행 활성화’ (1.9%), 기타(원자재 수급 및 가격 안정화) (1.9%) 순으로 응답했다.

- 조사기간 : 2022. 2. 21 ~ 3. 7 (휴일제외 10일 동안)
- 조사대상 : 영주상공회의소 관내 제조업체
- 조사방법 : 전화, FAX
- BSI의 기준치는 100. 100 초과는 호전예상업체가 악화예상업체보다 많음을 의미.
100미만일 때는 반대임
- BSI지수=
$$[(\text{호전예상업체수}-\text{악화예상업체수}) \div \text{전체응답업체수}] \times 100 + 100$$
- BSI전망치는 다음 분기에 대한 전망치임